

주체와 비체 사이에서 식민화된 여성육체*

—강경애의 『인간문제』, 『소금』, 『마약』을 중심으로—

심진경**

〈차 례〉

1. 지배담론 바깥에서
2. 계급적 각성의 (불)가능성—『인간문제』
3. 모성적 육체의 비체화—『소금』, 『지하촌』, 『마약』
4. '육체적인 것'의 정치성

[국문초록]

강경애의 소설에는 상징화에 포섭되지 않는 확정 불가능한 육체적 존재의 격렬한 현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소설에서 육체로만 스스로를 증거하는 날것 그대로의 육체성은 강경애 소설의 인장(印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경애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비체화된 여성육체의 물질적 현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현의 물질성이 어떻게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지를 밝힌다. 강경애 소설 속 여성인물들이 겪는 구체적 삶의 경험들은 너무나 격렬하고 물질적이어서 어떠한 관념이나 논리도 무력해지는 지점에 존재한다. 그들의 여성 육체는 오히려 이미 주어진 그런 의식과 관념의 경계를 무너뜨릴 만큼 확정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물질적이다. 이 확정 불가능한 여성 육체의 격렬한 자기 존재의 증거 방식이야말로 강경애 소설 특유의 개성이다. 그것을 '재현의 물질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육체뿐만, 육체로만 재현되는 이 여성 하위주체들의 물질적 현존이야말로 강경애 소설의 기이한 낯섦(uncanny)을 불러일으키는 서사적 구멍이며, 지배담론의 틀로는 포섭되기 어려운 타자적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는 기이한 서사적 동력이 된다.

[주제어] 육체, 모성, 식민화, 재현, 비체, 여성, 계급, 하위주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4522).

**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1. 지배담론 바깥에서

강경애(1906~1944)는 식민지 시대 여성작가들 중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초창기 한국문학사 연구에서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강경애는 여성 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1990년대부터 한국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작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강경애는 여성성의 작가로 단선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일단 강경애는 1930년대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여성작가였지만 다른 여성작가들과는 달리 그 시기 조선문단의 한 경향으로 자리잡았던 ‘여류문단’의 범주 속에 포괄되지 않았다.¹⁾ 오히려 그녀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라는 출신성분 때문인지, 1931년 『조선일보』에 투고한 첫 단편소설 「파금」에서부터 계급적 각성과 투쟁의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향작가로서의 면모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경애 소설을 계급의식이 전면에 드러나는 프로문학에 포함시키기도 어렵다. 비록 간도 이주 후에 1930년대 프로문단에서 제기된 예술운동의 불세비키화에 동조하고 <근우회> 장연지부에 가입하는 등 사회주의자로서 정치적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강경애는 카프(KAPF) 회원은 아니었다. 강경애가 다른 어떤 카프계열 작가들보다 더 지속적으로 ‘프로문학적’이면서 ‘리얼리즘적’인 작품을 발표하고 프로문학이 흔히 빠지기 쉬운 관념적 도식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가 가졌던 바로 그 계급문학과 의 모호한 관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²⁾

계급문학 담론으로 온전히 해석되기 어려운 강경애 소설의 모호함은 특히 비루한 하층계급의 육체가 전면에 배치되는 후기 중단편소설에서 더 두드러

-
- 1) 1930년대 후반 문학잡지에서 최정희, 모윤숙, 노천명, 이선희, 장덕조와 같은 여성작가들은 ‘여성작가좌담회’를 중심으로 결집했는데, 이들은 사적으로도 친분을 쌓아 그들 간의 일종의 정실주의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 당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도 이 ‘여류문단’에 속하지 못한 작가에는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가 있다.
 - 2) 흔히 강경애는 박화성과 함께 사실주의 리얼리즘 여성작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박화성과 달리 강경애는 전문적인 문학수업을 받은 적도 없는, 게다가 사상성을 드러내면서도 ‘프로’답지 않은 작가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서정자, 「체험의 소설화,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 13, 2005, 한국여성문학연구학회, 243~245쪽 참고.

지게 드러난다. 강경애의 후기 소설들에 대해 리얼리즘 문학에 도달하지 못하고 “현실의 부정성에 압도당하는 자연주의적 경향”³⁾에 빠져 있다고 보는 평가는 이런 맥락과 관련된다. 그리고 강경애 문학이 ‘전형적인 여성문학’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도 그 후기 소설들에 재현된 하층계급 여성인물들의 특성 때문이다. 강경애 소설에서 하층계급 여성은 대체로 계급적 각성은커녕 가부장제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성적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그들이 계급적·성적 자기 각성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그렇게 주체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남편이나 오빠, 아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들 남성의 부재는 곧바로 그들의 혹독한 운명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 점이 강경애 소설에 대한 전형적인 여성주의적 독해를 방해하는 요소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강경애 소설을 읽는 일이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강경애 문학에 대해 ‘여성문제’를 통해 ‘인간문제’에 이르렀다는 여성 중심적 해석을 하는가 하면⁴⁾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인식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⁵⁾ 이렇듯 서로 상반된 해석이 공존하는 것은 그만큼 강경애 소설이 단선적인 해석과 평가를 거부하는, 그 자체로 모순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만큼 강경애 소설의 여성문제 인식은 ‘긍정/부정’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만 해석되기 어려운 모호하고 모순적인 측면이 많다. 강경애 문학에 관한 많은 해석들이

3) 하정일, 『강경애 문학의 탈식민성과 프로 문학』, 김인환 외,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우스, 2006, 11쪽.

4) 강경애 소설이 여성문제를 통해 인간문제에 대한 통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논의로는 이상경, 『강경애: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김양선, 『젠더의 프리즘으로 형상화한 식민지 현실』,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 소명출판, 2003이 있다.

5) 이에 대해서는 박해경,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23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김경수, 『강경애 장편소설 재론--페미니스트적 독해에 대한 하나의 문제제기』,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연구학회, 2006 참고.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적 논의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강경애 소설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워지고 계급적 당위가 맹목적으로 추구되는 이유를 ‘모던걸’의 공포가 작가에게 내면화되면서 사회주의 여성 의식 안에 남성중심적 시각이 모순적으로 구조되었다는 데서 찾는 논의가 있어 주목된다. 송인화, 『‘모던걸’의 공포와 ‘동지’의 수사학: 『인간문제』에 나타난 강경애 사회주의 여성 의식 재고(再考)』, 『여성문학연구』 47호, 한국여성문학연구학회, 2019 참고.

결국에는 ‘여러 모순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식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성과 관련된다. 다만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강경애 소설은 “계급문제를 주요 모순으로, 여성문제를 부차적 모순으로 설정하면서 양자를 통일적으로 파악”⁶⁾했다거나, “성적 모순을 전경화하여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통합하는 방법을 구사”⁷⁾한 것으로 해석되곤 했다. 그러나 이처럼 강경애 소설에서 ‘주요모순’을 먼저 설정한 뒤 그 외의 모순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놓는 모순의 위계화 방식은 강경애 소설이 보여주는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지점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강경애 소설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민족모순, 계급모순, 성(性)모순이 분리 불가능할 정도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정형화된 논리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러한 다층화되고 중층화된, 그래서 분열적이기까지 한 작가의 현실 재현의 방식 및 그것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⁸⁾

분명 강경애 소설 속 여성인물들은 계급적·성적 자기 각성에 이르기는 하지만 “주체적이기보다는 타율적이거나 남성 의존적이며, 우발적이고 모호한 경향”이 짙다.⁹⁾ 그렇다고 해서 강경애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을 가

-
- 6) 홍기돈, 「식민지, 근대화 그리고 여성」, 김인환 외,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우스, 2006, 94~95쪽. 강이수 또한 강경애의 여성문제 인식을 “계급적 관계의 파생물”로 해석한다.(강이수, 「식민지하 여성문제와 강경애의 『인간문제』」, 『역사비평』 24, 역사문제연구소, 1993, 347쪽)
- 7) 김복순, 「강경애의 ‘프로-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25,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340쪽.
- 8) 그런 맥락에서 강경애 소설의 상층하는 모순적 지점들이 만들어낸 공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치밀한 작품 분석을 통해 밝히는 서영인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그 공백은 『인간문제』에서는 선비와 첫째, 신철 사이의 불가능한 삼각관계의 로맨스를 통해 서사 속에서 비재현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국 『인간문제』는 기존의 익숙한 여성서사가 아닌 불안정한 여성서사를, 기존의 익숙한 계급서사가 아닌 불안정한 계급서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영인은 계급서사와 여성서사의 틈새에 주목하여 계급서사로 귀속되지 않는 영역에서 여성성을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영인, 「강경애 문학의 여성성」, 김인환 외,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우스, 2006, 96~115 참고.) 그러나 강경애 소설의 불안정한 서사는 상당 부분 등장인물들의 물질적 현실과 육체성에 대한 묘사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9) 정현숙, 「균열과 통합의 여성 서사—강경애의 『소금』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60쪽. 정현숙은 이 글에서 강경애 소설에 나타나는 유희적이고 균열된 여성 주체의 형상화를 작가의식의 한계나 구조적 결합으로 지적하기보다 다층적인 질곡을 내면화한 여성 주체의 혼재된 의식과 삶의 진정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 일장

부장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남성화된 힘의 논리를 자기 삶의 내적 근거로 내면화한 존재들”¹⁰⁾이라고 일반적으로 비판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리로만 재단하기에는 강경애 소설 속 여성인물들이 겪는 구체적 삶의 경험들이 너무나 격렬하고 물질적이어서 독자들은 원치 않아도 모종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확정 불가능한 육체적 존재의 격렬한 자기증거 방식이야말로 강경애 소설 특유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재현의 물질성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육체뿐인, 육체로만 스스로를 증거하는 이 하위주체들의 물질성이야말로 강경애 소설의 기이한 낯섦(uncanny)을 불러일으키는 서사적 구멍이며, 지배담론의 틀로는 포섭되기 어려운 타자적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는 기이한 서사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경애 소설의 모순과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 속 인물들의 육체가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재현된 육체는 어떻게 상징화의 틈새를 빠져나가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주목할 점은 상징화의 틈새를 빠져나가는 여성 육체의 문제와 강경애 소설 특유의 모순적이고 중층적인 재현방식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경애 소설의 복잡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사적 공백을 만들어내는 여성 육체의 불균형한 재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강경애 소설의 다층적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2. 계급적 각성의 (불)가능성 - 『인간문제』

강경애의 『인간문제』(1934)는 그동안 “용연의 농민들이 인천에서 노동자로 재탄생하는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정을 축도적으로 형상화한 전형적인

부분 동의하지만, 이러한 여성의식의 균열과 충돌이 모성으로 통합되고 수렴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강경애 소설, 특히 『소금』의 모성이야말로 가장 균열적이고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10) 박혜경, 앞의 글, 257쪽.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¹¹⁾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소설에서 이러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각성한 남성 노동자의 전형으로 제시되는 ‘첫째’일 뿐, 지주의 성적 착취를 피해 간신히 여성 노동자가 되었지만 결국 폐결핵으로 비참하게 죽게 되는 ‘선비’는 아니다. 분명 작가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성적 모순을 인지하고 계급적 각성에 이르게 되는 간난, 선비 등과 같은 여성노동자를 통해 1930년대 여성노동자의 삶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여성문제의 독자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보다는 계급적 관계의 파생물로서 보는 경향이 강”하며, 그 때문에 “『인간문제』의 작가 강경애는 계급문제와 인간문제의 접점은 잘 그려내고 있으나 여기에 여성문제를 덧붙이고자 할 때는 다소간 한계를 보이고 있다.”¹²⁾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만큼 선비의 의식 각성은 매우 더디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격적인 각성에 이르기도 전에 그녀는 죽고 만다. 따라서 “즉자적 농촌 여성에서 강렬한 노동계급의 여전사 선비”¹³⁾라는 선비에 대한 평가는 ‘선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첫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힌다. 즉 『인간문제』의 계급적 비판의식은 ‘첫째’의 변신과정과 의식각성을 통해 제기되며 그런 의미에서만 이 소설을 ‘전형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그리고 이러한 (계급적, 성적) 전형성은 인물의 재현 양상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간문제』에는 다양한 육체의 대립쌍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지주와 소작인(혹은 유산자와 무산자), 지식인과 노동자, 신여성과 구여성 등이 그것이다. 소설 속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계급과 성이다. 이 계급과 성의 대립을 통해 생산된 전형적 인물들이야말로 『인간문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나약한 지식인, 강인한 노동자, 탐욕스러운 지주,

11) 최원식, 『『인간문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과와 한계』, 강경애, 『인간문제』 해설, 문화과지성사, 2006, 407쪽.

12) 강이수, 앞의 글, 347~348쪽 부분 인용.

13) 최원식, 앞의 글, 405쪽.

14) 그런 점에서, 『인간문제』는 선비의 서사라기보다는 첫째의 서사에 더 가깝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송인화, 앞의 글 참조.

병든 소작인, 성적으로 문란한 신여성 등등이 그것이다. 지주인 덕호(“누런 살이 투덕투덕 썩어 늙은 호박통 같은 덕호의 볼”)와 덕호 처(“그의 토실토실한 어깨 위는 등그렇게 드러났다.”)의 살쥔 육체는 그들의 탐욕을, 고된 노동과 굶주림에 마르고 비틀어진 소작인들의 육체는 그들의 가난을, “양복쟁이” 신철의 연약한 육체는 지식인의 나약함을, 옥점이의 “분 바른 얼굴과 양장한 몸매시”는 신여성의 성적 타락을, 첫째의 강한 식탐과 건장한 육체는 노동자의 건강함을 나타낸다.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육체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사회변혁에 대한 의지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이지만 결국 “무능하고 연약한 육체”(257쪽)로 인해 전향해서 “취직하고……돈 많은 계집을 얻”(349쪽)게 되는 신철의 운명도 그의 육체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특히 소설은 신철이 인천에서 부두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그를 ‘나약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만든다. 다음의 몇몇 구절들은 신철의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도 어떻게 고된 노동에 의해 무너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죄어오고 어깨 위가 부서지는 것 같다. 신철이는 죽음을 다하여 시멘트 포대에 볼을 꽂 붙이고 비틀걸음으로 오십 간 가량이나 와서 팡 하고 내려났다. (247쪽)

신철이는 지다가 다리가 휘청하며 푹 꺼꾸러졌다.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경련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일어났다. 그는 아픈 손을 입에 물고 어린애같이 울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흐트러진 벽들을 다시 쌓이놓고 그가 지워주는 대로 졌다. (248쪽)

신철이는 그제야 자기 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철수는 냉수와 걸레를 가지고 들어왔다. 신철이는 일어나려니 전신이 무거워서 꼼짝하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치 벽돌 질 때와 같이 힘이 쥐어지고 전신에서 경련이 무섭게 일어났다. (250쪽)

잉여노동의 착취! 그는 벽을 바라보며 입속으로 되풀이하였다. 그의 입속에서 돌아가는 잉여노동이란 그것은, 그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였다. (……) 동시에 수없는 벽들이 잉여노동의 착취란 문구를 싸고, 그의 가슴을 압박하여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똑바로 뜨며 내가 무슨 환영을 보는 셈인가…… 하였다. (251쪽)

처음 인천의 부두에 가서 시멘트를 저서 나르는 노동을 하게 된 신철에게 노동의 뿌듯함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머리로는 자신의 노동 경험을 통해 “노동자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251쪽) ‘잉여노동의 무게와 깊이’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노동은 신철에게 좋아하지도 않던 옥점과 초콜릿을 나눠 먹던 장면까지도 즐거운 한때로 떠올리게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두 번째 부두 노동을 하면서는 “노동자와 자기 사이에는 언제부터인가 짐작할 수 없는 그때부터 어떤 보이지 않는 간격이 팍 가로막혀 있음”(261쪽) 절감하게 된다. 나약한 인텔리 지식인 신철에게 실제 육체노동은 오히려 그를 노동자와 노동운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에 반해 술 마시고 싸우고 남의 물건을 훔치며 세상을 비판하던 첫째는 인천에서의 부두 노동과 신철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노동자’로 거듭나는 계기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 첫째는 “몰라보리만큼 껌센” 몸집, “무서우리만큼 강하게 빛나는”(303쪽) 눈동자와 “어떤 위엄”마저도 지닌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주체가 된다. 신철과 첫째의 육체를 통해 그려진 이 계급화되고 전형화된 육체는 우리를 익숙한 도식의 세계로 이끈다. 육체는 계급을 표상한다. 그런 점에서 ‘전형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서 『인간문제』의 세계는 바로 이렇게 육체성으로 증거된 계급의 위계질서가 정연하게 구축된 세계라고 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선비는 운명을 예측하기 어려운 육체의 소유자다. 그녀의 육체는 이 질서정연하게 이분화된 계급과 성의 위계질서를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만든다. 우선 선비의 이름답고 청초한 외모는 부잣집 남자와의 연애와 결혼을 가능한 것으로 상상하게 하는 멜로드라마적 여주인공의 운명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와 정갈한 살림 솜씨에 매혹된 신철이 선비를 서울에서 공부시킬 계획을 세우면서 이러한 멜로드라마적 서사의 가능성은 짙어진다. 그러나 신철의 계획은 선비에게 가닿지 못한 채 사그라들고, 그 대신 선비는 서울에서 공부시켜주겠다는 지주 덕호의 감언이설에 속아 끝내 강간을 당하고 만다. 결국 선비에게 아름다운 외모란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하층계급 여성의 비극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게다가 “마디가 굵고 손톱이 갈리어서 얼핏 누구의 손임을 짐작”(113쪽)하기 어려운 선비의 투박한 손은 온갖 역경을 딛고 계급적 각성에 이르게 될 노동 주체의 운명을 예감하게 하기도 한다. 아름다운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못생긴 손이야말로 선비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그 때문에 신철은 울바자를 타고 넘어오는 투박하고 거친 손을 보면서 그 손은 결코 선비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누굴까? 할멈의 손이다! 선비의 손이야 설마한들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나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 않아! 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 그때, 그의 머리에는 끝이 뽀죽뽀죽한 가는 손가락이 떠오른다. 문득 그는 선비의 손! 하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으로 인하여 불쾌하였던 생각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선비의 손이야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도 고운 선비에게…… 하며 언젠가 무의식간에 본 선비의 그 손이 오늘 아침 미운 그 손으로 인하여 어림없는 착각이 생겼던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 그는 한층 더 선비가 그리워지고 그가 떠날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키고 싶었다.(113쪽)

그러나 신철이 막연하게나마 언젠가 보았다고 착각하는 “끝이 뽀죽뽀죽한 가는 손가락”은 실상 선비의 것이 아닌 옥점의 것이다. 신철은 분명 “옥점의 뽀죽한 손끝”(179쪽)으로 상징되는 부유함과 성적 매력에 이끌리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그 대신 이 ‘뽀죽한 손’을 선비의 것으로 할당한다. 신철의 이러한 자기기만은 일차적으로는 선비에 대한 오해이자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지

만 서사가 전개될수록 이는 하층계급 노동자들에 대한 엘리트 지식인의 착각으로 확장된다. 끝내 신철에게 선비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아름다운 선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배제되고 아무런 의미를 얻지 못한 채 삭제된다. 그리고 그 손은 때론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곱기는 뿔이 고와, 그 손이 왜 그러냐. 난 손을 보니 무섭더라.”, 288쪽.) 이렇듯 선비의 외모와 손의 불일치는 선비를 서사 내에서 모호하게 위치짓게 한다. 선비의 거친 손은 그녀를 노동운동의 주체로 상상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고운 외모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선비의 성적, 계급적 지위는 불안정하게 동요한다.

그렇다면 그녀 눈등의 검은 사마귀는 어떤가? 첫째가 선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선비의 “티 없이 밝은 얼굴에 빛나는 눈등의 검은 사마귀”(71쪽)는 첫째에 의해 ‘빛나는 별’에 비유된다. 그리고 그것은 신철에게는 “그의 고운 자태!”와 함께 “그의 머리에 강한 인상을 던져주”(75쪽)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눈등의 검은 사마귀(‘검은’에 유의하자)는 대개 코믹하거나 모자란, 캐리커처된 하위주체를 상징하는 특징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이 사마귀는 예쁜 얼굴의 오점인가, 아니면 하층계급 여성임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징표인가? 결국 선비는 멜로드라마와 노동운동, 착취당하는 육체와 주권적 주체 사이에서 모호하게 떠돌다가 어떤 운명에도 귀속되지 못한 채 죽는다. 선비의 비균질적 육체는 그녀를 어떠한 상징체계에도 귀속되지 않는 낯선 존재로 만든다. 바로 이 유동적이면서 규정 불가능한 선비의 육체적 정체성이야말로 『인간문제』를 전형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로 단정짓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다.

선비는 분명 어떤 점에서는 원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가부장(덕호)에 의해 성적, 경제적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러한 현실에 비판적 태도를 갖기보다는 구여성에게 허용된 어떤 삶(아들 출산을 통한 신분 상승)을 소망하기까지 하는,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관계와 통념에 사로잡힌 존재다. 특히 각성 이전의 선비는 “남성화된 힘의 논리를 자기 삶의 내적 근거로 내면화한 존

제”¹⁵⁾라는 점에서, 선비의 여성의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는 타당성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를 단순히 가부장제적 질서와 관념에 속박된 여성으로만 단정짓기도 어렵다. 비록 간난이와 같은 자각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명 선비 또한 자신이 처한 전근대적, 가부장제적, 식민주의적, 자본주의적 조건에 대한 비판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선비는 비로소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손, “빨강계 익은 손등! 물에 부풀어서 허영게 된 다섯 손가락”이 공장 안에 쌓인 “죽은 손가락”(345쪽)들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비를 저항적·투쟁적 노동 주체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자신의 거칠고 붉게 부풀어오른 손을 통해 막연하게나마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상상하기 시작하던 선비는 그 순간 자신의 “다섯 손가락 새로 붉은 피”(348쪽)를 흘리며 쓰러지고 만다. 가부장제 담론과 페미니즘 담론, 식민담론과 저항담론 가운데 어느 하나로 귀속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병든 선비의 육체는 그렇게 서사 바깥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무섭게 첫째 앞에 나타나 보이는 선비의 시체는 차츰 시커먼 멍치가 되어 콧 가로질리는 것을 그는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 시커먼 멍치! 이 멍치는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멍치, 이 멍치야말로 인간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병든 여성 노동자의 육체는 어떠한 계급적 각성에도 이르지 못한 채 ‘검은 멍치’라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 ‘검은 멍치’의 해석을 더욱 모호하게 한다. 그것은 해결해야 할 인간문제인가, 아니면 첫째의 앞길을 가로막는 해결 불가능한 인간문제인가? 이 문장은 대개 선비의 죽음을 계기로 확고해진 첫째의 계급적 각성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되어 왔다.

15) 박혜경, 앞의 글, 257쪽.

그러나 과연 ‘시커먼 뭉치’가 된 선비의 시체는 첫째의 노동계급 주체로서의 각성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대목에서 선비의 시체를 마주한 첫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움’이며, 그 다음 반응은 ‘절망감’(캄캄하다는 감각)이다. 그것은 분명 사랑했던 여성의 죽음을 마주한 사람의 통상적인 감각이나 감정은 아니다. 그렇다고 계급적 각성이라기에는 절망적인 정조가 너무 두드러진다. 의미화의 가능성을 빠져나가는 이러한 애매성이야말로 선비의 육체가 갖는 애매성과 관련된다. 이때 ‘시커먼 뭉치’로 남은 선비의 육체는 어떠한 감정이입조차 불가능하게 한다. 선비의 죽음을 통한 계급적 각성이 불가능한 이유다. 그 결과 선비는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도, 멜로드라마의 주인공도 되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끝내 서사의 바깥으로 밀려나 침묵과 부재의 흔적만을 남기게 된다.

3. 모성적 육체의 비체화 - 「소금」, 「지하촌」, 「마약」

결국 『인간문제』의 선비는 각성한 노동자로 거듭나 자신 앞에 던져진 ‘인간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첫째와 달리, 성적 유린과 노동력 착취를 당하다가 결국 혹독한 여성 억압적 현실에 압도되어 영원히 침묵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시커먼 뭉치’란 끝내 계급적·성적 주체화에 이르지 못한 채 “가부장제, 식민주의, 계급주의 등으로 인한 중첩된 억압”¹⁶⁾을 아무런 완충 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온갖 모순이 직설적으로 새겨지게 된 물질적 육체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은유나 상징도 불가능한 물질성의 현현이다. 비록 『인간문제』 후반부에서 선비가 간난이를 통해 계급운동 주체로서의 자의식을 부분적으로 획득하여 “오늘의 선비는 옛날의 선비가 아니라……고 부르짖고 싶”(368쪽)어했지만 끝내 이러한 부르짖음은 실현되지 못한다.

이러한 여성 육체의 재현 불가능성은 강경애 후기소설 속 하층계급 여성

16) 김민정, 「강경애 문학에 나타난 지배담론의 영향과 여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연구」, 『어문학』 85집, 한국어문학회, 2004, 319쪽.

들의 고통이 집결되는 모성적 육체를 다룰 때 더 분명해진다. 식민지 조선 하층민들이 극도의 궁핍과 비참의 상황으로 몰리던 1930년대 중후반, 강경애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발표된 후기소설, 특히 『소금』(1934), 『지하촌』(1936), 『어둠』(1937)은 이 세계의 비루함과 고통을 비루한 모성적 육체에 적나라하게 새겨놓는다. 예컨대 『소금』의 소름끼치는 출산 장면, 『지하촌』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쥐가죽 아래 들끓는 구더기들, 혹은 칠성이 어머니의 가랑이 사이에 늘어진 악취 나는 살덩어리, 『마약』에서 도망가는 여주인공의 찢겨져나가는 신체 조각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성적) 육체성의 표현은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낯것 그대로의 강렬하고 확정 불가능한 육체적 존재의 격렬한 자기 현현은 중요하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강경애의 소설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강경애 소설이 갖는 고유한 정치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들 소설에 나타나는 비참한 여성 육체의 경험과 그 재현 방식이 어떻게 강경애의 소설을 기존 담론의 자장을 벗어나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분명 강경애 소설 속 여성인물들, 특히 어머니는 남성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제적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체현하는 비참한 육체적 경험으로 인해 이들은 그러한 논리만으론 재단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 이해를 압박하고 초월하는 낯선 존재가 된다. 오직 적나라하게 전시되는 비루한 육체로써만 스스로를 증명하는 이들 하위주체 여성들은 어떠한 언어적 매개도 의미화나 관념화의 장치도 없이, 여성 육체가 놓인 절박한 상황을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예컨대 『소금』의 ‘봉염 어머니’가 자신을 강간한 지주 광둥에게 쫓겨나 한겨울 낯선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은 어떠한 은유조차 불가능한 여성 육체의 적나라한 물질성을 잘 보여준다.¹⁷⁾

아직도 헛간은 킁킁하다. 킁킁한 저편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파뿌리! 그는

17) 심진경,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강경애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강경애, 심진경 엮고 옮김, 『소금』 해설, 민음사, 2019, 156쪽. 이 글에서 강경애 『소름』에 대한 분석 일부는 이 해설에서 가져온 것이다.

어제 저녁에 주인 여편네가 오늘 장에 내다 팔 과를 헛간으로 옮겨 쌓던 생각을 하며 ‘웁다! 아무 거라도 좀 먹으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얼른 몸을 숙우어 파뿌리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오는 듯하여 그는 몇 번이나 뽑은 과를 입에 대다가도 감추곤 하였다. 마침내 그는 과를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시뻘하며 딱 맞찔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짝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내릴 때에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몰아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과를 입에 넣고 이번에는 씹지도 않고 허끝으로 우물우물하여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과는 왜 그리도 차며 뻗뻗한지, 그의 목구멍은 찢어지는 듯 눈물이 쑥 빠져졌다.¹⁸⁾

봉염 어머니는 출산 직후 극심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차갑게 언 과를 씹는다. 그러나 그녀는 과가 이에 부딪친 충격으로 입을 못 다물고 침을 흘리다가 급기야 흘러내리는 침을 손으로 받아 삼키고는 다시 과를 입에 넣어 씹지도 않고 억지로 삼킨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데, 봉염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는 경험해본 적 없는, 격렬한 예외적 사건으로 다가온다. 그리하여 이 장면에서 굶주린 여성 육체는 객관적 거리화가 불가능한, 그래서 묘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존재의 형식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언어적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곳에서 현실 그 자체처럼 작동된다. 그렇게 봉염 어머니의 육체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비유가 아닌, 끔찍한 현실 그 자체가 된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모종의 유물론적 지형도를 그려가는 이 여성 육체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어떤 모호한 세계가 된다. 「소금」의 봉염 어머니를 프롤레타리아 계급문학의 노동자, 여성해방문학의 각성한 여성주체, 모성애가 강한 어머니 등과 같이 특정 정체성으로만 한정짓기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왜냐하면 봉염 어머니에게 현실은

18) 강경애, 「소금」, 위의 책, 37~38쪽. 이후 이 글에서 다룰 세 작품, 즉 「소금」, 「지하촌」, 「마약」을 인용하는 경우 쪽수만 표기한다.

모성이나 프롤레타리아 계급 개념의 렌즈를 통과하기도 전에 육체로 매개되어 육체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경애 소설 속 여성, 특히 모성은 단일한 주체나 정체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적나라한 존재들, 오직 육체만으로 스스로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범주의 규범에 포착되지 않는, 비체적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비체(卑體)¹⁹⁾란 상징질서가 요구하는 주체화 과정에서 추방된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것들, 그래서 “나와 근본적으로 분리된 것,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²⁰⁾이다. 주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비체화된 존재들이란 “주체가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타자이지만 타자로서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²¹⁾ 그리하여 ‘이것이 과연 인간의 몸인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온갖 질병과 장애, 부패, 오염 그리고 죽음으로 뒤범벅된 비참한 육체들이 나뒹구는, 그래서 몸을 가진 소설 속 인물들을 차마 인간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지하촌」은 어떤가. 일찍이 「지하촌」은 “한국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하고도 엄청난 모험을 처음으로 시도한, 그리고 과연 소설이 이 지경에 이르러도 좋은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벼랑까지 몰로 간”²²⁾ 소설로 평가받았다. 그만큼 이 소설 속 인물들은 궁핍하다거나 비참하다는 판단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차라리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요구할 만큼 낮설고 기이하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는 소설 속 ‘지하촌’은 단순히 궁핍한

19) 이 글에서 ‘비체’는 ‘아브젝트’(abject)와 ‘아브젝시옹’(abjection)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쥘리아 크리스테바는 ‘아브젝트’를 주체 수립 과정에서 추방되어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대상에 한정짓지 않고 주체에게 출몰하여 주체를 의미가 붕괴되는 장소, 소멸시키고야 말 장소로 끌어들이는, 주체의 실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본다. ‘아브젝시옹’은 이러한 붕괴와 소멸로부터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음식물, 오물, 쓰레기, 똥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느끼는 혐오감, 경련, 구역질 등의 주체의 반응을 가리킨다. 강경애 소설 속 어머니의 육체는 기존의 모성 담론을 위협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모성 이미지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혐오감과 구역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강경애 소설의 모성적 육체는 ‘아브젝트’이자 ‘아브젝시옹’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와 ‘아브젝시옹’에 대한 설명은 전해은, 『섹스화된 몸』, 새물결, 2010, 66~78쪽 참고.

20) 쥘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1쪽.

21) 전해은, 앞의 책, 174쪽.

22) 김운식, 『한국 현대문학 명작 사전』, 일지사, 1979, 268~269쪽.

농촌이라는 배경이 아닌, “살아질 수도 없고 거주할 수도 없는” 영역들 그 자체이자 “살아질 수 없는 것”이라는 기호 하에 사는 존재들이 모여 있는 영역으로서, 버틀러에 따르면 그 자체로 비체라고 할 수 있다.²³⁾ 그런 측면에서 소설 속 ‘지하촌’은 비체화된 ‘식민지-육체’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기괴한 육체는 바로 소설 결말에 갓난아이인 영애의 머리통에 들러붙어 있는 쥐가죽이 들춰지면서 발견된 ‘구더기 육체’다.

“어마이 저것 봐!”

칠운이는 뛰어 일어나서 응응 운다. 그들은 놀라 일시에 바라보았다. 아기는 언제 그 형질을 찢었는지 반쯤 형질이 찢어졌고, 그리로부터 썰알 같은 구더기가 설렁설렁 내달아 오고 있다.

“아이구머니 이게 웬일이야 응, 이게 웬일이어.”

어머니는 와락 기어가서 형질을 잡아 걸으니 쥐 가죽이 딸려 일어나고 피를 문 구더기가 아글바글 떨어진다.(124쪽)

갓난아기의 머리에 난 상처 구멍에서 기어나오는 구더기들을 묘사한 이 유명한 장면은, 분명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마치 언어를 벗어난 곳에서 저 혼자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를 (언어로) 환원 불가능한 물질성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갓난아이와 부패와 죽음의 기호인 구더기가 결합된 이 구더기 육체는 삶과 죽음 어디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비체적 존재다. 이 비체적 존재는 우리를 혐오감 속으로 몰아넣고 판단정지 상태에 빠지게 만듦으로써 우리의 인식체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지하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면이 위의 장면과 마찬가지로 파리와 똥, 오줌으로 뒤덮인 비위생적 환경에서 극도의 궁핍과 고된 노동, 질병에 시달리는 뒤틀린 존재들로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독 이 장면에 더 경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3) 주디스 버틀러, 김윤상 옮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24~25쪽.

이 소설에는 탄생과 죽음, 안과 밖, 생명과 부패 등이 한 몸에 체현된 비체적 존재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밑이 빠진’ 모성적 육체다. 출산 직후 제대로 된 산후조리 없이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하게 되면 내부 장기가 질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장기 탈출 현상을 흔히 ‘밑이 빠진다’고 말한다. 칠성 어머니는 영애를 낳은 뒤 쉬지 않고 고된 노동을 하다가 밑이 빠진다. 그녀의 (아마도 장의 일부로 짐작되는) “주먹 같은 살덩이”는 “무슨 물을 줄줄 흘리”면서 수시로 “염증을 일으켜 퐁퐁 부어서 걸음을 걸을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위로 수없는 종기가 나”(99쪽)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주먹 같은 살덩이’는 출산 직후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늘 종기와 진물로 뒤덮여 있다는 점에서 영애의 머리통을 연상시킨다. (“아기의 조 머리엔 종기가 지질하게 났고, 거기에는 언제나 진물이 마를 사이 없다.”, 88쪽.) 그것은 완전히 자기 안에 들어앉지도, 밖으로 내쳐지지도 못한 채 모성적 육체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 칠성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주체의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구더기가 들끓는 영애의 머리통은 어머니의 아랫도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그리고 종기와 진물로 뒤덮여 있다는 점에서 출산 후 아랫도리에서 빠져나온 칠성 어머니의 ‘살덩이’를 연상시킨다. 영애의 머리통이 모성적 육체의 아브젝트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악취와 고름덩어리로 이루어진 어머니의 육체와 그 어머니로부터 배태된 갓난아이는 그렇게 아무런 매개 없이 우리에게 육박함으로써 현실의 경험을 초과한다. 그것은 마치 내 눈 앞에 펼쳐진 상황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데 이해하거나 해석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게 강경애 소설 속 비체화된 모성적 육체는 우리의 현실 인식의 지평을 심문한다.

그 점에서는 『마약』의 보덕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마약』은 아편중독자인 남편에 의해 청인에게 팔려간 아내가 젓먹이 아이를 보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탈출하다가 울타리의 철사에 몸과 옷이 찢기고 굵힌 채 넘어지고 구르면서 도망가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다. 기존 논의에서 이 소설은 “모성적 자질의 특성 중 하나인 대상과의 미분리성, 통합성으로 인해 자신을 독립된 개체

로 인식하지 못”²⁴)하는 모성적 특징을 식민지 빈곤 문제와 결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혹은 이러한 평가의 연장에서 ‘자식에 대한 강한 육체에 때문에 남편의 마약 중독이라는 현실 문제를 끝내 외면하는 소설’로 이해되기도 한다.²⁵) 그러나 이 소설의 고유성은 모성 서사에 있지 않다. 『마약』은 오히려 온몸이 찢기고 난자당해 죽어가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적나라한 전시 그 자체가 소설의 핵심이자 주제가 되고 있는 소설이다. 여기서 작가는 어떠한 의식과 관념의 틀에도 포착되지 않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육체성을 통해 여성 하위주체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마에선 땀인가 무엇인가 쉴 새 없이 흘러 눈을 괴롭히고 목덜미로 새어 흐른다. 비가 오는가 했으나 그것을 살필 여유가 없고 진가가 따르는가 돌아보게 된다. 썩썩! 철삿줄 소리가 머리 위를 달리는 것이다. 그는 후다닥 몸을 숙구치다가 멍하고 쓰러진다. 아직도 그가 철삿줄을 붙들고 섰는가 싶었던 것이다. 다시 정신을 돌리고 나면 ‘이번에야 떼지, 그래. 우리 보득일 잘 키워야 하지.’ 울면서 일어나 닫는다. 마지막 사라지려는 마을의 등불은 불에 단 철사인가 싶게 길게 비친다. (……) 문득 이마를 만지니 상처가 깊이고 그리로 피가 흐르는 것을 직각한 그는 속옷 갈래를 찢으려다 기진하여 머리를 땅에 박고 만다. 이번엔 적삼을 어루만지려니 발가벗은 몸이고 아까 울 밖으로 옷을 던진 채 감박 잇고 온 것을 짐작한다. 다시 속옷 갈래를 찢으며 애를 쓴다. 헛기운만 험험 나올 뿐 손은 맥을 잃고 만다. 떼야! 떼야!(74~75쪽)

옷이 발가벗겨진 채 철사에 찢리고 돌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면서도 이편중독자 남편과 젓먹이 아이를 향해 고통스럽게 달려가는 모습은 너무 생생하고 절박해서 독자는 보득 어머니의 고통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특이 이 예문에서 주목할 점은 ‘철사’의 환유적 운동

24) 김양선, 앞의 글, 211쪽.

25) 김주리, 『일제 강점기 소설 속 하층민 이편중독자 표상 연구-모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00~202쪽 참고.

성이다. 보득 어머니의 몸을 아프게 찌르는 ‘철사’는 점점 도망가는 그를 따라붙는 위협적인 바람소리(“썩썩! 철삿줄 소리”)로, 더 나아가 아직도 ‘그’를 붙들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확장되다가 급기야 이 세계를 뒤덮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로 미끄러지며 이동한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끝내 ‘철사’를 “떼지” 못하다가 중국에는 마을의 등불조차 “불에 단 철사”로 보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그러나 ‘그’가 죽어가면서도 끝내 떼지 못한 철사는 젖먹이인 보득이에 대한 모성적 애착이 아니었을까. 모성적 욕망이 강렬할수록 모성적 육체가 해체되고 파괴되는 이 아이러니야말로 강경애 소설 속 모성이 얼마나 모호하고 이상한 것인지를 시사한다. 이렇듯 손쉬운 상징화와 이미지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기존의 의미체계를 빠져나가는 강경애 소설 속 모성 육체가말로 우리에게 두려운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4. ‘육체적인 것’의 정치성

기존에 강경애 소설은 페미니즘 문학의 전형으로도, 리얼리즘 문학의 정수로도 추켜세워졌지만 결국에는 페미니즘 문학으로 보기에는 여성주체의 각성이 부족하고, 리얼리즘 문학으로 보기에는 전형성이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렇게 페미니즘으로도 리얼리즘으로도 포섭되기 어려운 강경애 문학의 복합성과 다층성을 몇몇 연구자들은 민족모순, 계급모순, 성 모순이 중층 결정된 문학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 도식으로 축소하고 말았다. 혹은 페미니즘적 리얼리즘이라는 중도적인 개념으로 포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강경애 소설의 진정한 가치는 그 위에 드리워진 그러한 도식과 관념의 휘장을 걷어냈을 때에만 비로소 드러난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주체와 비체 사이를 왕복하는 강경애 소설 속 여성인물들의 확정 불가능한 육체다. 강경애의 소설에서 그런 여성 육체는 어떠한 메타포도 도구도 되지 않으면서 그 자체로 현실의 고통과 환부를 압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전시한다.

강경애의 소설에서 이러한 의미화되지 않는 여성 육체들이말로 ‘식민/피식민’의 민족담론, ‘지주/소작농(자본가/노동자)’의 계급담론, ‘여성/남성’의 젠더담론 등의 이분화된 담론과 이데올로기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그리하여 여성서사와 계급서사의 전형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틈새적이고 잉여적인 존재들이다. 강경애 소설에서 재현되는 여성 하위주체는 식민자, 노동계급, 여성이라는 용어들이 함축하는 각각의 주도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동질화된 집단이나 계층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오히려 단일화하기 어려운 주체성의 다층적 모순을 보여준다. 강경애 소설에서 재현되는 하위주체는 모성담론, 식민해방담론, 계급해방담론 등과 같은 기성담론들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드러나는 순간 지워져버리는, 그리하여 완전히 복원될 수 없는 존재다. 이들 여성인물은 그러한 기성담론의 틈새를 빠져나가는, 상징화가 불가능한 존재로만 현현한다. 그들은 주류 역사의 기록에서 정형화된 채 지워지거나 침묵으로 남아 있는 하위주체 여성의 경험을 어떠한 관념의 프레임도 통과하지 않은 채 검게 벌어진 상처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준다.

강경애의 소설에서 기존 담론에 포섭되기 어려운 이러한 비실재적 존재로서의 ‘육체적인 것’은 기존 감각체계를 동요시키면서 독자로 하여금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현실이라는 벌어진 상처와 대면하게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언어가 세계 속에 스며들어 언어가 사라지고 세계가 눈앞으로 육박하는 감각적 체험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감각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낮은 현실과 만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강경애의 소설이 보여주는 고유한 정치성이다. 지배담론의 회로에 결코 포섭되지 않고 어떠한 은유화도 거부하는 이 물질적 육체야말로 완벽하게 타자적인 존재다. 이 ‘육체적인 것’이야말로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성, 재현 불가능한 것의 재현 가능성을 타진하게 하는 문학적 현실 인식의 바로미터, 즉 ‘정치적인 것’의 측량소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윤식, 『한국 현대문학 명작 사전』, 일지사, 1979.
 이상경, 『강경애: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간국대학교출판부, 1997.
 전혜은, 『섹스화된 몸』, 새물결, 2010.
 주디스 버틀러, 김윤상 옮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첼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 논문

- 강이수, 「식민지하 여성문제와 강경애의 『인간문제』」,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24, 1993.
 김경수, 「강경애 장편소설 재론—페미니스트적 독해에 대한 하나의 문제제기」,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 연구』 16, 2006.
 김민정, 「강경애 문학에 나타난 지배담론의 영향과 여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85집, 2004.
 김복순, 「강경애의 ‘프로-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25, 2008.
 김양선, 「젠더의 프리즘으로 형상화한 식민지 현실」,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 소명출판, 2003.
 김주리, 「일제 강점기 소설 속 하층민 아편중독자 표상 연구: 모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 연구』 39, 2016.
 박혜경,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문제」,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 23, 2003.
 서영인, 「강경애 문학의 여성성」, 김인환 외,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우스, 2006.
 서정자, 「체험의 소설화,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13, 2005.
 송인화, 「‘모던걸’의 공포와 ‘동지’의 수사학: 『인간문제』에 나타난 강경애 사회주의 여성주의식 재고」, 한국여성 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47호, 2019.
 심진경,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강경애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강경애, 심진경 엮고 옮김, 『소금』 해설, 민음사, 2019.
 정현숙, 「균열과 통합의 여성 서사—강경애의 『소금』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집, 2008.
 최원식, 「『인간문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과와 한계」, 강경애, 『인간문제』 해설, 문학과지성사, 2006.
 허정일, 「강경애 문학의 탈식민성과 프로 문학」, 김인환 외,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우스, 2006.
 홍기돈, 「식민지, 근대화 그리고 여성」, 김인환 외,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우스, 2006.

The Female Body Colonized Between the Subject and Object

— Focusing on Kang Kyung-ae's *Human Problem*, *Salt*, and *Drug* —

Shim Jinkyung*

In Kang Kyung-ae's novel, you can find a violent manifestation of an indeterminate physical existence that is not included in symbolism. In these novels, the raw physicality that proves itself only with the body can be said to be the seal of Kang Kyung-ae's novel. This study reveals the meaning of the material manifestation of such an impersonal female body found in Kang Kyung-ae's novel, and how the materiality of this reproduction acquires political meaning in a different level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e specific life experiences of female characters in Kang Kyung-ae's novels are so intense and material that they exist at the point where any idea or logic becomes powerless. Their female bodies are rather indeterminate and thoroughly material enough to break the boundaries of such consciousness and ideas already given. The method of evidence of this indeterminate female body's violent self-existence is the unique personality of Kang Kyung-ae's novel. You can call it 'the materiality of reproduction'. The material existence of these female sub-subjects, who prove themselves only by body and body, is an epic hole that evokes the strange unfamiliarity of Kang Kyung-ae's novel, and becomes a curious narrative driving force that moves other beings that

* Contract professor in Sogang University

are difficult to be included in the framework of the ruling discourse.

Key words : Body, Motherhood, Colonization, Representation, Abject, Women,
Class, Subaltern